



비전대, 유학생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19일 전북 간호조무사회(회장 이선옥) 후원을 받아 유학생을 위한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비전대 유학생 30여 명과 이효숙 국제교류원 원장 이선옥 회장, 이형권 전주대 특임교수(칼럼니스트) 등이 참석했다. 베트남 유학생 포지하오(자동차과 1년) 학생은 "유학생들 중 여러 힘든 과정들이 있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유학을 통해 목표하는 꿈을 이뤄 돌아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 이실리 딸기연합회, 수익금 500만원 기탁

김제시 이실리 딸기연합회(회장 이태훈)가 19일 지역 내 공동생활가정(그림-흙) 저소득 학생들에게 써 달라며 500만 원의 이웃돕기성금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이태훈 회장은 "고부가가치 힘든 상황이지만 지역사회의 공동 생활가정 소망(女)·코비(男) 그림-흙 저소득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에 감사드리며, 딸기 농가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실리 딸기연합회는 15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지난 2020년 11월 4일 착한소비 캠페인 협약식을 맺은 후 공동모금회 로고를 사용한 판매수익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2021년부터 기부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하서농협 대강당서 '10차 농업인 행복버스'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과 농협부안군지부(지부장 김삼형), 하서농협(조합장 기세원)은 하서농협 대강당에서 2023년 10차 농업인 행복버스를 19일 운영했다고 밝혔다.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상담과 진료를 통한 개인에게 맞춤형 침·부항·물리치료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장수사진·개인별 건강 맞춤형 돌보기 제공 등 행복버스에 참여한 농업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기세원 조합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건강 생활에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정책 발굴과 우리 농업인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농협, 제주 남원농협과 도농 교류 행사 열어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지난 17일 고충상담센터에서 제주 남원농협(조합장 고일학) 관내 생산 농산물 관로 확대 및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도농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전북 남원농협에서는 제주 남원읍에서 생산된 하우스 감귤 관측 행사를 열고, 제주 남원농협에서는 남원의 참이슬 관측 행사를 열어 양측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편 양 농협은 산지농협과 소비자농협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농산물 판매사업 및 각종 사업과 연계 추진, 농업 관련 분야의 정보교환 및 상호보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0년 8월 24일 자매결연을 맺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 곳곳 수해 복구 '구슬땀'

공무원·군장병·민간단체, 골든타임 정하고 힘모아 복구지원

장맛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9일 고창군 수해 현장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한풀이 간 흔적이 곳곳에 여전했다. 집 마당까지 들어찬 흙탕물과 각종 잔해물 등을 치우는 복구작업이 한창이었다. 고창군 대신면 산정마을의 한 주택, 홀로 살고 계신 80대 어르신 집 뒤쪽 절개지가 많은 비에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인제리도 흙과 바위들이 집안까지 들어다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대신면사무소 직원들을 비롯해, 대신면민회, 주민자치위원회, 대신면자율방재단은 토사제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직원들은 토사가 더 밀리지 않도록 파란색 방수포를 아산 비탈면에 덧대고 황톳빛 진흙과 자갈을 마대에 담았다. 고수면에서도 목동저수지의 비탈면 유실부분의 긴급 복구가 진행됐다. 군청을 비롯해 고수면, 고수면민회 등이 힘을 합쳐 토사가 쓸려 내려간 부분에 80m의 천막을 덮어 응급복구를 완료했다. 군청 행정지원과 직원 30여명과 무장면 직원들은 무장면 월림리 죽림마을 도로변 토사제거를 진행했고, 흥덕면에서는 고창대계(중령 정현민)와 지역자율방재단이 굴삭기를 동원해 이틀째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 복



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외에도 헤리면에서 농로 유실 피해지역 응급복구, 부안면에서는 선양마을 뒤편 배수로 정비, 성내면에선 흙을 마대에 담아 약해진 논둑을 정비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고창읍은 관광산업과, 종합민원실과 함께 천변 산책로의 쓰레기와 덩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주말새 다시 장맛비가 예고된 만큼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빠른 복구에 나서고 있다"며 "지원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과 편의제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쌍교동 성당, 남원노인복지관에 후원금 전달

남원시 관계저는 천주교 쌍교동 성당(주임, 이상용 신부)에서 제8회 춘향제 행사 기간 음식 나눔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1,000만 원을 19일 남원시노인복지관(관장=장진석 신부)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상용 신부는 "춘향제 기간 애써준 교우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얻은 수익금을 남원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저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춘향제 기간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 일부를 매년 남원시노인복지관에 기부 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년 명절과 성탄절 부활절에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서울경찰청 기동대·군부대 등 군산 수해 복구 인력지원

군산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경찰청 기동대 3개중대와 군부대 등이 발벗고 나섰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나포면 입피면 일원 토사유출이 많은 지역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3개 중대(180명)이 긴급 투입됐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이날 건물 뒤 산 붕괴로 유실된 토사와 농배수로 막힌 주택 내 유입된 토사 등 피해 현장 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현장에 방문한 오현제 35사단장 최충문 서울경찰청 경무국장 김종탁 7공수특전여단장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기동대 중대원과 군인들에게 복구를 위해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육군제9585부대 1대대 공군 38전대, 7공수특전여단 등 군인력 200여명은 지난 18일부터 굴삭기, 덤프트럭, 로더 등 장비를 지원해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또 19일에는 육산 대야 입피 등 1대대 50명과 7공수 72명



의 군 인력을 투입해 토사정리, 비닐하우스 정리, 주택 침수 정리, 방수로 덧댐 등 손질이 필요한 곳에 투입돼 피해 현장에서 현장복구를 위해 동원됐다. /군산=김관문 기자



무주복지관, 지역주민 위한 대전대 연합의료 봉사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흥교)에서 지난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무주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전대학교 학과 연합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대전대학교 학과 연합 의료봉사는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예과, 본과)와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의료봉사 동아리 '보료'와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약 80여 명이 참여했다. 3일간 무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침, 뜸, 부항 시술 자세 교정, 약제 조제 등 무료 한방 의료봉사와 체중, 혈압, 요검사 등 간단한 검진, CPR 교육이 이루어져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이흥교 관장은 "23년 2월에 이어 복지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자 손길을 내밀어 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동아리 '보료'를 비롯한 임상병리학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다. 이번 연합 의료봉사가 지역 내 노인 장애인 지역주민의 건강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제16회 호남권역 사회복지사 워크숍, 태권도원서 개최

제16회 호남권역 사회복지사 워크숍이 19일과 20일 양일간 태권도원에서 진행된다.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회(회장 박주영)가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사회복지사업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과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박일규 사회복지사업회장을 비롯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19일에는 기념식과 유시민 작가(도시의 변화 "유럽도시 기행")와 박태웅 의장(기술의 변화 "chatGPT")초청 강연을 비롯해 MC용이 진행하는 두근두근 보이는 라디오 등 문화공연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이날 태권도원 도약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황인홍 군수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 쉬는 태권도성지 무주



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아름다운 무주 대한민국 자랑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이 자리가 고생하는 여러분께 큰 위안이 되고 사회복지사로서 자질을 기르는 기회도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1회 구천동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 개최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19일 원로조합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및 친목을 통한 지역 화합의 장을 마련 하고자 구천동게이트볼장에서 내년 등 선수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구천동농협 조합장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2개편(실천 무풍) 3팀이 출전했으며,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 김법석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장, 무주농협 광동영 조합장 등 각급 사회단체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평소 조합원들의 권익 증진과 소득 향상을 앞장서 오신 원로조합원들을 위해 앞으로도 복지증진과 실익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LG전자베스트샵 김제점, 선풍기 100대 기탁

LG전자베스트샵 김제점 김민호 대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의 무더위 해소를 위해 써달라며 선풍기 100대(500만 원 상당)를 19일 김제시에 기탁했다. 김민호 대표는 "2011년부터 김제에서 사업을 해왔는데 김제시민들과 정이 많이 들어 2019년부터 시작한 선풍기 100대 기부사업이 5번째가 되었다"라며 "어르신들이 혹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기부받은 선풍기는 김제시 관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생활지원사들이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게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체의 후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경찰, 치매노인 발견 신고 주민 감사장 수여

무주경찰서(서장 유봉현)는 19일 치매노인을 발견, 보호하며 112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찾아준 무주를 내로라 앞섬마을 주민 이순자(73세, 여)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순자 어르신은 지난 16일 오전 3시경 무주읍 후도마을 펜션에 가족과 놀러온 치매노인 제 00(74세,여)이 길을 잃고 홀로 걷고 있는 것을 아침 운동하러 나왔다가 7시경 앞섬마을 회관 앞에서 치매노인을 발견 신속하게 112 상황실에 신고하여 주계파출소에서 가족에게 인계하는데 기여했다. 주계파출소장 장택수는 치매노인을 발견 신고해준 이순자 어르신의 귀감을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경찰서장 감사장을 추천했다. 이에 유봉현 경찰서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유령 노인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본인도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평소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며, 치매노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심한 관찰로 한 생명을 구한 이순자 어르신의 귀감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무주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